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진춘화¹, 장준호^{2*}

¹호남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 ²호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f the College Students on Employment Anxiety: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Chunhua Jin¹, Jun-Ho Jang^{2*}

¹Ph.D. Student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한 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도 커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존감은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자기효능감은 조절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은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취업 불안감을 감소시키지만,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취업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학업스트레스, 취업 불안감, 자기효능감, 자존감, 조절효과

Abstract Based on the prior study, this study established the hypothesis that academic stress would lead to employment anxiety, and verified whether self-efficacy and self-esteem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Employment anxiety increases as the academic stress increases, and self-esteem plays a role of modera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but self-efficacy has no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although self-efficacy does not play a role of moderating, employment anxiety decreases as self-efficacy increases. Self-esteem generally reduces employment anxiety, but it has shown that employment anxiety increases in academic stress situations.

Key Words : ACADEMIC stress, EMPLOYMENT anxiety, SELF-esteem, SELF-efficacy, MODERATING effec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8월 고용률은 2017년 동일

시점에 비하여 0.3%p 하락한 60.9%를 기록하였고, 2018년 2월 청년 실업률은 9.8%로 1년 전 실업률 4.6%의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상승은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Corresponding Author : Jun-Ho Jang(jjh4653@honam.ac.kr)

Received March 30,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April 1, 2019

Published May 28, 2019

적지 않은 취업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면접 등 새로운 방식의 전형이 취업 시장에 도입되면서, 대학생들이 취업 불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등에서 학업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개념의 대표적인 요소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1-5]. 그러나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자존감과 양자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의 관계를 밝히는 동시에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두 요인의 실증적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취업 불안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적 자원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효과를 포함하여 취업 불안감의 영향 요인을 포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고찰

학업스트레스의 정의함에 있어, 이주원(2008)은 학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불안감, 우울, 근심, 긴장, 공포,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6], Lee(2001)는 학업으로 유발되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학업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7]. 한편, 취업 불안감에 대하여 박영우(1994)는 취업불안은 일종의 상태불안으로 대학생들이 취업에 대해 가지는 불안이라고 정의하였으며[8], 조규판(2008)은 취업준비생이 취업준비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라고 하였다[3].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연구에서 특수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라고 정의되었고[9], 자존감(self-esteem)은 Rosenberg(1965)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지향성으로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라고 정의되었다[10].

학업스트레스, 취업 불안감,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사이의 관계 및 영향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연중·손은령(2012)은 학업과 취업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취업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학습능력과 취업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11], 박영원(2017)은 자기효능감을 취업 준비 과정과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12].

또한, 이경민·범철호(2017)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13], 박윤희(2017)는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불안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4], 안은경(201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14].

한편, 진효정(201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존감만이 적응적·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 되었으며[15], 황인영의 연구에서는 취업 스트레스 전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존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16]. 최해림(1999)은 자존감은 취업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2], 김현동(2014)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학생들의 구직조건 선호도, 취업에 대한 정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1].

2. 연구방법

2.1 서론 연구모형

2.1.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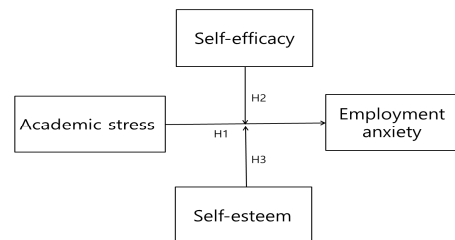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1.2 연구가설의 설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취업 불안감과 자기효능감, 자존감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정도에 따라 취업 불안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간의 영향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H1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취업 불안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H3 대학생의 자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할 것이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서면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기본자료, 학업스트레스, 취업 불안감, 자기효능감, 자존감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분하였고, 설문은 전라남도 광주지역의 대학생 2, 3, 4학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성별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학생 91명(50.8%), 여학생 88명(49.2%)으로, 각각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본을 학년별로 구분하면, 2학년 학생이 전체 학생의 14.0%에 해당하는 25명, 3학년 학생이 60.9%로 가장 많은 인원인 109명, 그리고 4학년 학생이 25.1%인 45명으로 나타났다.

3.2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anatory factor analysis)과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하였으며, 공통성(Communality)이 0.5 이상인 변수만을 선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타당도는 KMO 측도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KMO의 값이 0.944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인분석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Factor Analysis Result

	Component				Communality
	1	2	3	4	
Academic stress1				.660	.532
Academic stress2				.751	.715
Academic stress3				.724	.714
Academic stress4				.804	.684
Academic stress5				.771	.708
Academic stress6				.721	.634
Employment anxiety1		.658			.762
Employment anxiety2		.753			.816
Employment anxiety3		.744			.750
Employment anxiety4		.757			.788
Employment anxiety5		.775			.759
Employment anxiety6		.780			.801
Employment anxiety7		.633			.620
Self-efficacy1			.620		.798
Self-efficacy2			.715		.770
Self-efficacy3			.763		.813
Self-efficacy4			.765		.814
Self-efficacy5			.752		.803
Self-efficacy6			.740		.826
Self-efficacy7			.725		.832
Self-esteem1	.790				.798
Self-esteem2	.809				.715
Self-esteem3	.776				.740
Self-esteem4	.862				.830
Self-esteem5	.762				.701
Self-esteem6	.828				.782
Self-esteem7	.654				.629
Eigenvalue	5.74	5.17	5.02	4.20	
Explained variance	21.26	19.14	18.61	15.56	
Cumulative explained variance	21.26	40.39	59.00	74.56	
Kaiser-Meyer-Olkin	.944				

Table 2는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모든 변수의 크롬바- α 값이 0.6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의 평균값은 3.097점,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의 평균값이 3.29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보통이나 취업 불안감은 평균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은 2.863점, 자존감은 2.99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보통 이하의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Result

Variable		Item (removed item)	Average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alpha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stress	7(1)	3.097	0.840	0.886
	Moderating Variable	Self-efficacy	7(0)	2.863	0.860
		Self-esteem	7(0)	2.999	0.870
Dependent variable	Employment anxiety	7(0)	3.297	0.888	0.943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과 0.632의 정(+)의 상관관계를,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는 -0.529의 부(-)의 상관관계를, 자존감과는 -0.384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취업 불안감이 증폭되고,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

	Academic stress	Employment anxiety	Self-efficacy	Self-esteem
Academic stress	1			
Employment anxiety	.632**	1		
Self-efficacy	-.529**	-.765**	1	
Self-esteem	-.384**	-.571**	.708**	1

* p<.05, **p<0.1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과 -0.765의 부(-)의 상관관계를, 조절변수인 자존감은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과 -0.571의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의 증가는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가설 검증

4.1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첫 번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F 값은 74.576으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므로 회귀모형이 적합하고, 분산팽창계수(VIF)의 값이 크지 않아서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업스트레스의 표준화계수값은 0.544이며, t 값은 8.636으로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도 증폭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Table 4.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employment anxiety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B	Std. Error	Beta		
(Constant)	1.652***	.220		7.495	
Academic stress	.593***	.069	.544	8.636	1.000
R-sq(Adj_R)	.296	.292			
F-value	74.576***				

* p<.05, **p<0.1, ***p<.001

4.2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Aiken & West(1991)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17].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상호작용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평균중심화방법을 사용하였다(Cohen et al., 2003)[18]. 조절회귀분석 방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호작용변수가 회귀모형에 추가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력(R^2)이 증가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즉,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수,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변수(독립변수×조절변수)를 추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79.439	
Academic stress(A)	.188***	.206	3.624	1.388
Self-efficacy(B)	-.586***	-.641	-11.295	1.388
A×B				
R-sq(adj-R)	.592	.587		
R-sq change	.592			
F for change	127.747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512		72.495	
Academic stress(A)	.187***	.204	3.602	1.389
Self-efficacy(B)	-.579***	-.633	-11.086	1.409
A×B	.044	.055	1.126	1.025
R-sq(adj-R)	.595	.588		
R-sq change	.003			
F for change	1.269			

* p<.05, **p<0.1, ***p<.001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2)은 59.2%이며,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학업스트레스×자기효능감)가 포함된 3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2)은 59.5%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0.3%p 증가하였으며, F 변화량 값은 1.26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자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에서 자기효능감은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을 감소한다는 것으로, 자기효능감은 취업 불안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다.

4.3 자존감의 조절효과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는 종속변수인 취업 불안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단계와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자존감을 포함한 2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2)은 44.5%이며, 독립변수인 학업스트레스, 조절변수인 자존감, 학업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상호작용변수(학업스트레스×자존감)가 포함된 3단계 회귀분석의 설명력(R^2)은 46.3%이다. 3단계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단계에 비하여 1.8%p 증가하였으며, F 변화량 값은 5.787로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은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Academic Stress and employment anxiety

	2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489***		68.114	
Academic stress(A)	.352***	.384	6.320	1.173
Self-efficacy(B)	-.382***	-.418	-6.870	1.173
A×B				
R-sq(adj-R)	.445	.439		
R-sq change	.445			
F for change	70.616***			

	3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VIF
(Constant)	3.536		65.189	
Academic stress(A)	.357	.391	6.507	1.175
Self-efficacy(B)	-.359	-.393	-6.457	1.207
A×B	.124**	.135	2.406	1.030
R-sq(adj-R)	.463	.454		
R-sq change	.018			
F for change	5.787**			

* p<.05, **p<0.1, ***p<.001

또한, 3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상호작용변수의 베타계수 값은 0.124로 취업 불안감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스트레스의 증가는 자존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업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며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부정적 감정이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취업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거나 외부영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업스트레스의 증가와 같은 부정적 요소에 보다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여 취업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 후,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이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을 분석한 결과,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도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가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성이 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 사이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은 취업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취업 불안감은 감소하는 반면, 학업스트레스의 증가는 자존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취업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를 형성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 강한 학생들일 경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 더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존감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고,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더라도 부정적 감정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취업 불안감을 감소시키지만,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취업 불안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취업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학업스트레스가 과도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자존감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과도한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을 더 강조하는 상담과 조언을 통하여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불안감은 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취업 불안감을 감소시키려면 우선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학업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은 자아개념에서 대표적인 요소이나, 스트레스와 관해서는 자존감보다는 자기효능감이 더 중요한 개념이므로 자기효능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자료가 연령 및 지역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향후 이에 관한 후속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설문조사의 대상 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인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교육 및 심리학적 관점에 한정된 분석이 실시되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경영학, 사회학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기업체의 조직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취직 후 조직 내에서 업무성과, 생산성, 이직 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D. Kim. (2014). Investigating Predictors for Job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Self-Esteem & Future Career Inform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33(6), 81-96.
- [2] H. R. Choi. (1999). A Study on College Students Self Esteem, Depression and Family Self.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1(2), 183-197.
- [3] G. P. Cho. (2008). A Study of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ob-Seeking Anxiety Test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6(2), 53-75.
- [4] Y. H. Park. (2017).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 and career ripening degree of College Students on Employment Anxiety.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2), 41-61.
- [5] G. P. Ko & M. Y. Sim. (2014). The Structural Relation of Self-efficacy, Job Stress,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27(1), 19-38.

- [6] J. W. Lee. (2008).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Stress: Focused on Metacognitive Strateg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7] K. O. Lee. (2001). *The impact of Leisure Activities on Learning Stress: The Cas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8] Y. W. Park. (1994). *A Study on the Choice of career and Employment Anxiety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 [9] B. Albert.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10] M. B. Rosenberg. (2003). *Nonviolent Communication: A Language of life*, CA.: Puddle Dancer Press.
- [11] Y. J. Kim & E. Y. Son. (2012). The Relation of Two Dimensional Typology in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with College Students' Learning Behavior.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13(5), 2443-2461.
- [12] Y. W. Park. (2017). *The Effect of Hotel Management Students' Career Choice Motivation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Moderating Role of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jong University, Seoul.
- [13] K. M. Lee & C. H. Bum.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golf maj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265-273.
- [14] E. K. Ahn. (2018).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365-372.
- [15] H. J. Jin. (2014). *The Effect of Emotional Awarenes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Esteem 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16] I. Y. Hwang. (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of College Students on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17] L. S. Aiken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18] J. Cohen, P. Cohen, S. G. West & L. S. Aiken.(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3rd ed.)*. U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진 춘 화(Jin, Chun Hua)

[정회원]



- 2006년 3월 : 일본 고마자와대학 경영학사
- 2008년 3월 : 일본 고마자와대학 경영학석사
- 2016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

· E-Mail : 2016074@honam.ac.kr

장 준 호(Jang, Jun Ho)

[정회원]



- 1995년 2월 : 호남대학교 경영학사
- 1998년 8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석사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경영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인사관리, 조직행동

· E-Mail : jjh4653@honam.ac.kr